

작품 내용

제 목	결은 복사되지 않는다
내 용	시골집 할아버지 서재의 오동나무 상자 뚜껑을 열었을 때, 먼저 닿은 건 먼지 냄새가 아니었다. 바짝 말라버린 묵향, 그리고 까슬한 옷칠 촉감. 잡동사니가 쌓인 깨짝 바닥에서 손바닥만 한 대추나무 도장 몇 개와 노랗게 변색된 족자 한 편이 나왔다. 대추나무 도장 정면에는 할아버지의 호인 '청람' 두 글자가 음각되어 있었다. 칼날이 지나간 자리는 기계 다듬질처럼 매끈하지 않았다. 나뭇결을 따라 잘게 흔들린 자국, 단단한 마디를 비껴가려 칼끝을 비스듬히 누른 흔적이 그 대로였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말쑥이 드물었다. 여름날 서재 문을 열면 바지에 조각칼 끝을 쓱 문지르시곤 "나무는 성급하게 덤비면 결이 트는 법이다" 하고 툭 한마디 던지시던 분이다. 그 무뚝뚝한 말투가 나뭇결 사이에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고, 직장에서는 글꼴과 벡터 그래픽을 만졌다. 픽셀 그리드 위에서 펜 툴을 클릭하면 점과 점 사이로 베지에 곡선이 그려진다. 클릭 한 번이면 지우고 다시 그리는 매끄러운 픽셀의 세계. 그 정갈한 조형에 길든 내게 대추나무 도장의 불규칙한 획은 낯설고 생생했다. 나는 카메라를 가져와 할아버지 도장의 인영(印影)과 족자의 한문 글씨를 찍었다. 사진을 화면으로 불러와 확대를 거듭하면서 획을 디지털 벡터 폰트로 복원하기 시작했다. 픽셀을 키우면 키울수록 칼끝이 머물다 간 자리가 거칠고 불규칙한 나뭇결의 입자로 펼쳐졌다. '앵커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가며 할아버지의 조각 자국을 다듬었다. 도장에 새겨진 나뭇결의 저항을 매끈한 곡선 좌표로 바꿔 놓는 일이었다. 획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화면 위에 점을 수백 번 찍고 방향선을 조심스럽게 당겼다. 그렇게 약 2주간 매달린 끝에 할아버지의 호를 붙인 '청람체'라는 라이선스 폰트를 완성해 배포했다. 키보드를 누르면 화면 불빛 아래로 할아버지의 조각칼 자국이 아른거리는 글자가 떴다. 족자 안에서 멈춰 있던 획이 비로소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문제는 폰트를 배포하고 몇 달 뒤에 터졌다. 우연히 들어간 어느 무료 디자인 리소스 공유 커뮤니티에서 낯익은 획의 글씨체가 눈에 걸렸다. 누군가 내가 만든 청람체 파일 구조를 무단으로 해체했다. 글자 끝을 미세하게 찌그러뜨린 다음 '무료 빈티지 서체팩'이라는 이름으로 올려둔 것이다. 게시물 하단의 다운로드 수치는 이미 천 건을 넘어가고 있었다. 댓글 창에는

"이런 서체가 무료라니 감사하다", "빈티지 작업에 딱이다" 같은 글이 끊임 없이 올라왔다. 화면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려던 손가락이 순간 허공에서 멈췄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났다. 커뮤니티 고객센터의 저작권 침해 신고 서식을 열고 URL과 파일명을 적어 내려가다 손을 멈췄다. 법적 침해 신고 버튼을 누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다만 찌그러진 폰트 이미지 아래 달린 칭찬 댓글을 읽어 내려갈수록 목구멍 안쪽이 텅텅하게 막혀왔다.

누군가에게 이걸 그저 클릭 한 번으로 다운받아 디자인 작업에 가져다 쓸 '무료 템플릿 하나'였을 뿐이다. 글자 모양만 살짝 바꾸었으니 문제 될 게 없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빼앗긴 것은 글자의 겉모양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나무를 파내던 침묵의 시간, 내가 밤을 새우며 점을 찍던 수십 시간의 노고. 그것이 아무런 이름도 예의도 없이 '공짜 재료'로 흩어져 버렸다는 허탈감이 남았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화면을 보고 뭐라 하셨을까. "내버려 두라, 글자란 본래 쓰이는 게 목적이다" 하셨을까, 아니면 특유의 무뚝뚝한 눈빛으로 허를 찔리며 조각칼을 거두셨을까. 답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모니터 옆에 놓인 할아버지의 청람 도장을 가만히 쥐어보았다. 대추나무의 들뜬 나뭇결이 손바닥 안에 오롯이, 까칠하게 닿았다.

화면 구석에는 저작권 침해 신고 서식 창이 떠 있었다. 그 옆 청람체로 적힌 글씨 끝에서 흰 커서가 묵묵히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신고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채 손안의 도장을 한 번 더 쓸어보았다. 나뭇결은 여전히 거칠었고, 끝내 복사되지 않았다.